

※ 五行의 旺相論

①五行의 個體 및 그 相互間의 生成, 發展, 安定, 停滯, 衰退의 운동단계를 旺相死囚休의 부호로 표시한 것으로 五行의 相生相剋 관계로 표시하면 我를 중심으로

我는 旺(王相之任): 같은 기운에 힘입어 기능을 최대한 발현함
 生我者는 相(則生): 本體에 滋養을 받아 機能을 활발히 發揮하는 時空
 克我者는 死(克): 자기를 克하는 氣運에 의해 기능이 사라지고 정지함.
 我克者는 囚(圍人): 相侮의 氣運에 의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억압됨.
 我生者는 休:引하는 氣運에 의해 원활히 기능을 발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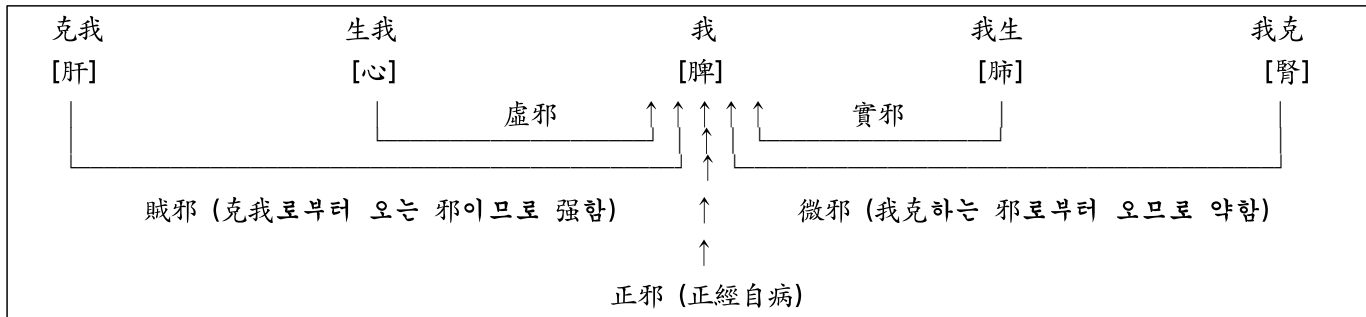
※ 變化 原則 (cf, 我克囚, 克我死로 해석, 我를 五臟으로 해서 문제해결)

	春	夏	長夏	秋	冬
肝(木) 風	旺	休	囚	死	相
心(火) 熱	相	旺	休	囚	死
脾(土) 濕	死	相	旺	休	囚
肺(金) 燥	囚	死	相	旺	休
腎(水) 寒	休	囚	死	相	旺

※ 五邪 (難經.50難)

- ①虛邪(從後來者): 母病及子 -- 病邪가 生我하는 데(母의 位)서 傳來한 것.
 어떤 臟에 病이 있을 때 我生의 臟에 그 影響을 미치는 것.
 ex. 水不涵木(=>肝陽上亢, 虛證), 心肝火旺(實證)
- ②實邪(從前來者): 子盜母氣(子病及母) -- 病邪가 我生(子)하는 데서 傳來된 것.
 어떤 한 臟에 病이 들었을 때 生我的 臟에 影響을 미치는 것.
- ③賊邪(從所不勝來者): 病邪가 克我하는 데서 傳來한 것(相乘의 傳變)
 어떤 한 臟에 병이 있을 때 我克의 臟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 木旺乘土
- ④微邪(從所勝來者): 病邪가 我克하는 데서 傳來한 것(相侮의 傳變)
 어떤 한 臟에 병이 있을 때 克我的 臟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木火刑金, 土虛水侮
- ⑤正邪(自病者, 스스로 앓는 것): 臟자체의 속성과 같은 病邪의 침범으로 발병한 것

※ 五邪傳變論 (‘難經’에서 由來)



※ 八卦 (地天泰, 天地否(痞), 水火既濟, 火水未濟...)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卦象	☰	☱	☲	☳	☴	☵	☶	☷
形態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
性質	건강 굳셈 (健)	기쁨 온화 (說)	밝음 아름다움 (麗)	결단 분발 (動)	들어감 우유부단 (入)	정착 지혜 (陷)	고요함 멈춤 (止)	온순 고요함 (順)
人間	老父 男子	少女 친구	中女	長男	長女	中男	少男 소년	老母 여자
事物	큰 강 평원	골짜기	문서 편지	나무 수레	草木	술 약	집 성	마루 음식
季節	늦가을 초겨울	가을	여름	봄	늦봄 초여름	겨울	초봄	늦여름 초가을
方位	서북	서	남	동	동남	북	동북	서남
動物	말	양	꿩	용	닭	돼지	개	소
身體	목 머리	입	눈	발	대퇴부 다리	귀	손	배
五行	陽金	陰金	火	陽木	陰木	水	陽土	陰土

一乾天	二兌澤	三離火	四震雷	五巽風	六坎水	七艮山	八坤地
太陽	少陰		少陽		太陰		
陽				陰			
太極							

※ 음양의 속성

(1) 全一

모든 대상의 내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지면, 두 개가合一될 때 그 본체는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전일의 속성이 있다. 즉, 음양 그 자체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지만 물질 생성원리의 기초가 되며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온갖 사물의 대립과 통일을 개괄한다.

(2) 待對

어떤 사물이든 모두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그 일정한 속성은 陰陽의 두 방면으로 나누어진다. 이 상대성의 관계가 연속되면서 대비되는 상대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는 對待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3) 統一

음양은 상호 관련된 두 개의 대립된 사물을 대표하며, 동시에 동일사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 대립의 양면을 대표한다. 이 음양의 상대성은 그들 사이에 相互資生, 相互依存의 관계가 있으며 어느 한 면만으로는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음양의 상호관계를 관찰하면 음양은 相互同根인 하나의 통일체라 할 수 있다.

(4) 分化

음양분화에 의한 대립의 상대적 원리는 온갖 사물에 陰과 陽의 양면이 있으며 동시에 陰과 陽의 내부에도 陰과 陽의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양 속에 다시 음양이 있다는 속성으로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상호대립의 연결, 즉 對待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5) 消長

음양의 상대적 관계는 정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相互對抗, 상호작용하며 進退消長の 현상을 나타낸다. 陽은 陰에 의해 과도하게 왕성해지지 않고 또 陰은 陽의 조화를 얻어서 과도하게 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양은 消長の 변화가 있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대적 평형의 범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음양의 변화가 있으며, 변화하는 상태에서도 평형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음양의 변화가 상대적 평형을 상실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음양의 자연사물을 규정하는 속성: 全一, 對待, 統一
- 음양의 발전과 변화의 속성: 分化, 消長
- 現象 事物의 本體: 一元的 本體의 無限變化 / 全一 → 對立 → 統一 → 分化
- 陽道奇 陰道偶: 奇(陽) 全一 統一의 원리 / 偶(陰) 分化 對立의 원리